

BAIK + KHNEYSSER

if still ourselves, a thing to become

전시기획 Joey Lico

참여 작가: 박철호 Park Chel Ho, 프란시스코 도노소 Francisco Donoso, 히로유키 하마다 Hiroyuki Hamada, 판 호웅 Phaen Howng, 양정욱 Yang Jung Uk, 카르멘 마르도네즈 Carmen Mardónez, 글렌달리스 메디나 Glendalys Medina, 해롤드 멘데스 Harold Mendez, 에밀리 올리베이라 Emily Oliveira, 클라우디아 파네카 Claudia Paneca, 로드리고 발렌주엘라 Rodrigo Valenzuela

오프닝 리셉션 : 2021년 7월 17일 오후 5 - 7 시,

전시 기간 : 2021년 7월 17일~31일

위치 : 1148 South Victoria Ave LA CA 90019, Los Angeles, US

BAIK+KHNEYSSER 는 리틀 시티 팜 엘에이에서 단체전 *if still ourselves, a thing to become*을 엽니다.

본 전시의 제목인 *if still ourselves, a thing to become*은 카니시아 루브린 (Canisia Lubrin)의 시에서 그를 빌려온다. 전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풍경이 그 기원으로부터 자발적인 움직임을 펼쳐나가는지, 또한 제국주의적인 전망아래 만들어진 이상주의적인 환상을 어떻게 스스로 폭로하는지 보여준다.

전시는 11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 어떻게 인간의 눈과 렌즈, 붓을 통해 개인 정체성과 풍경을 걸러내 왔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풍경은 많은 사람이 상상하고 표현했던 것인데, WJT Mitchell은 이를 “제국주의의 꿈의 작업으로 작동한다”고 표현한 적 있다. 작품들은 각자 디아스포라적인 시각을 경쟁하고, 우리가 풍경과 그 재현에 대해 가지는, 세대를 거쳐 내려온 관계를 보여준다.

작가 박철호와 클라우디아 파네카는 교환의 매개으로써 풍경이 순환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들의 작품은 유럽의 픽처레스크 (그림 같은 풍경) 전통을 거스르며, 자연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둔사적인 추상을 보여준다. 이들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풍경 (landscape)” 이라는 말의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아마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경화를 감상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독특한 현상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오는 의문일 것이다. 이 현상은 조작된 것이며 동시에 목장의 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히로유키 하마다, #89, 2020, Painted resin and wood, 48 x 20.5 x 27인치

판 호웅과 해롤드 멘데스, 로드리고 발렌주엘라는 시각적인 차용의 공간으로서 풍경을 가리킨다. “자연”이 원예를 통해 공간의 물리적인 변화로 놓여있든지 (판 호웅의 뱀-식물 시리즈), 건축물에 의해 놓여있든지 (로드리고 발렌주엘라의 쾌락적인 반전 사진),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발견되든지 (해롤드 멘데스의 흑요석 조각), 그들은 모두 풍경의 어두운 면에 빛을 비춘다. 그 어두운 면은 단순히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이상주의로 자신을 덮는 도덕적, 이념적, 정치적 어둠이다. 1980년에 존 배럴의 “일하는 나라는 결코 풍경일 수 없다”는 말을 되짚어볼 때, “자연미”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망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은 가려졌다. 전시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서구화된 풍경에서 가려져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대부분의 작품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몇몇 작가들은 정체성 형성의 진원지로서 풍경을 탐구한다. 프란시스코 도노소, 카르멘 마르도네즈, 에밀리 올리베이라, 글렌달리스 메디나, 히로유키 하마다, 양정욱, 이들은 모두 우리가 같은 곳에 서 있지 않으며, 보편적이고 문제없는 “우리”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전에 세운 틀에 상관없이 말이다. 자신의 작업에 대해 히로유키 하마다는 “예술은 즉각적인 사회적 형성을 넘어 우주의 더 큰 틀과 연결되어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작업은 관객을 다양한 방식으로 붙잡는데, 울타리 뒤에 관객을 두기도 하고 (프란시스코 도노소), 허구의 언어로 (글렌달리스 메디나), 시적인 형태의 물질로 (히로유키 하마다), 내레이션으로 (양정욱), 살아있지 않은 신화적인 미래로 (에밀리 올리베이라), 혹은 가정 물품의 정치학으로 붙잡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들은 다른 작가들과 함께 “미국 풍경”의 주변부에 우리를 묶어두고, 그들 자신의 디아스포라적인 영역을 활성화한다.

프레스 관련 문의:

baik@baikart.com | baikkhneysser.com | baikart.com